

광주시, 첨단소재부품 제조·글로벌 연구거점 '도약'

한국알프스, 286억 투자 생산시설 증설...연 700억 매출 증대
하남산단에 연구개발(R&D)센터도 개소...80명 신규 고용 창출

광주시가 첨단소재 부품 글로벌 산업의 연구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알프스(주)의 연구개발(R&D)센터 개소에 이어 첨단소재 부품 생산시설 증설을 마치고 올 하반기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0일 하남산단 한국알프스(주) 생산시설 증설 준공식에 참석, 준공을 축하하고 기업인과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강 시장과 김규남 한국알프스(주) 대표이사, 박병규 광산구청장, 백인기 코트라 광주전남지원단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준공식은 한국알프스(주)의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공로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한국알프스(주)와 생산시설 증설 및 연구개발(R&D)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은 생산시설 증설에

286억300만원, 연구개발(R&D)센터 구축에 162억8천만원을 투자하고 연구원 등 80명을 신규 고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알프스(주)는 반도체 및 자동차 글로벌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첨단소재제품 생산시설의 투자 이행에 따라 건평 2천585㎡(782평), 연면적 5천603㎡(1천695평), 2층 규모의 생산시설을 확충하게 됐다.

한국알프스(주)는 올해 하반기부터 파워인터티의 생산시설을 갖춰 본격 제품 생산에 들어가며, 헤파 모듈 등 첨단소재부품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연간 700억원 이상의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

앞서 한국알프스(주)는 지난 5월16일 광주 'KBI 하남' 지식산업센터 내 2천78.47㎡(828평)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개소했다. 센터는 첨단소재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

교류 공간으로 활용된다.

김규남 한국알프스(주) 대표이사는 "알프스알파인 그룹 내 한국알프스가 중요한 연구개발 및 제조거점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알프스는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첨단소재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 글로벌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자동차, 인공지능, 반도체산업 등에 경쟁력을 갖춘 생산 및 연구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광주시에 재투자한 첫 사례로, 사람이 모이고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집중된 연구개발(R&D) 인력이 대거 생겨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광주시는 인재 격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인재양성 사다리를 완성시키고, 인공지능(AI)·미래차·반도체 중심의 먹거리를 만들어가겠다"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오전 광산구 하남산단 한국알프스(주) 생산시설 증설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8기 9개 대표산업 육성을 위한 주력산업 고도화를 통한 지속성장 역량 강화와 미래신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1987년 설립된 한국알프스(주)는 일본 도쿄에 있는 글로벌 기업인 알프스알파인이 100% 투자한 기업이다. 차제전장·통신 관련 부품, 컴포넌트 등의 전자 부품을 제조·생산하고 있으며,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LG전자, 마쯔다, 혼다, 지엠, 볼

보, BMW, 다임러 등 주요 글로벌 고객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광주지역 대표 외국인투자기업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총매출은 1조5천억원이며, 정규직과 협력사 등 1천5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현대자동차그룹-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 개소

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과 손잡고 국내 전기차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9일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KTC 본관에서 김홍수 현대차 GSO(Global Strategy Office) 담당 부사장, 안성일 KTC 원장,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개소식을 갖고 이르면 연말부터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과 KTC는 국내 충전기 제조 사업자들이 충전기 품질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충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번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 설립 역시 공신력 있는 충전기 품질 인증 체계를 수립해 고객이 믿고 쓸 수 있는 충전기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전기차 충전 편의를 증진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는 충전기 내구성·신뢰성, 실충전 성능, 보안성, 통신 적합성, 전자파 적합성 등 5가지 표준화된 품질 평가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익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모든 제조사 및 충전사업자에게 오픈해 운영된다.

현대차그룹은 KTC와 함께 인증항목을 개발하고 전기차 초고속 충전소 이피트(E-pit)를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품질 검증 체계와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전기차 충전 생태계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 E-pit : 모터스포츠 레이싱의 피트 스톱(Pit stop)에서 영감을 받아 전기차 충전 관련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은 현대차그룹의 초고속 충전 브랜드

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위한 부지와 장비, 시설을 제공하고 인증 시험 시행 및 인증서 발급 등 '전기차 충전 품질 인증제도'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한편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는 국내 법정인증지원에서 나아가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법정인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충전기 제조사업자가 충전기 인증 획득을 위해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김홍수 현대차 GSO담당 부사장은 "고객이 전기차를 충전하면서 고장 걱정 없이 안정적인 충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설립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대차그룹은 충전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보다 많은 고객이 훨씬 향상된 충전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든 불편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충전 생태계의 질적 육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E-CQV)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충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맨 파워

나이 들어도 자신있는 남자 Project

삶의 활력을 찾자!
남성의 자신있는 삶!

기력이 없는 갱년기 남성 건강에 활력을 주는 건강기능식품
MR-10과 소팔메토, 아연의 복합기능성 제품으로
남성갱년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솔루션~!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